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정비하는 도시들

인천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2024.10.7.

제주시 공원녹지와 공원관리팀
2024.10.17.

인천시, 노후 공원을 다세대 통합 공간으로 재정비

인천시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원을 여러 세대의 필요를 반영하여 새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에 진행된 ‘노후 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230개소의 노후 공원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총 34개소의 공원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이 중 2개소를 정비하였다.

이번에 정비한 두 곳은 서구 새말 어린이공원과 부평구 뚝골 문화공원으로, 공원 주변 인구 분포 및 주민 이용 현황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 운동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서는 개별 공원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늘어가는 시니어 인구를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스텝바 건너기, 곡선 경로 따라 움직이기 등)를 설치하였다.



서구 새말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 모습(좌)과 시니어 운동기구(우)
출처: 인천시. (2024).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인천 노후공원 새롭게 탈바꿈한다. 10월 7일 보도자료.

제주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제주시가 12월까지 연동지역 67호 어린이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한다. 시가 추진 중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장애·비장애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공간 구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동부 지역(신산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1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나, 서부 지역에는 아직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어 연동 지역 67호 어린이공원에 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67호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재정비하여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인 모래놀이터, 다인그네, 슬라이드, 정글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